금곡 스님, 10.27법난위 위원장 선출

10월 22일, "피해자 명예회복 최선"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사진〉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0.27법난위원회는 10월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공석인 위원장에 금곡 스님을 선출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금곡 스님은 "10.27법난은 국가권력 남용으로 불교의 자존과 수행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역사"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명예회복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물론, 한국 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적인 미래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취임 의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유산 봉정사 가을음악회

안동 봉정사(주지 도륜)는 안동시 · 경북미래문화재단과 함께 10월 20일 봉정사 영산암 특설무대에서 '천등우화(天燈雨花) 봉정예가(鳳停藝歌)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은 "봉정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안동은 하회마을과 더불어 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불교와 유교문화가 안동에서 꽃피고, 안동이 세계적인 문화의 고장임을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행의 공간 봉정사가 문화콘텐츠 생산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주민과 함께하는 귀촌 한마당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마이산 탑사 탑밴드는 10월 19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마을에서 귀농귀촌 · 원주민간의 화합과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및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문리 마을은 아름다운 소나무 숲의 능선이 있고, 아름다운 연꽃저수지가 있다. 귀촌귀농인들이 강줄기가 흐르는 이문마을에 정착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곳에 살면서 이문리가 부자 마을로 거듭나길 바란다.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름다운 이문리에서 잘 살라"고 덕담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나 된 부산 태고종 포교와 문화 전할 터"

Interview

자관 스님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0년 이어진 분열 아픔 딛고
새로운 통합 종무원장 역할
대중 위한 新종무원사 시급

"앞으로 부산 태고종 종도가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원(願)이자 확신입니다. 연등행렬에서 붉은 전통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며 부처님오신날을 장엄하고 환희의 불심도시를 보여줄 것입니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으로 선출된 자관 스님의 밑그림이다. 스님은 10년 동안 분열돼 있던 부산교구를 뚝심으로 밀어붙여 하나로 통합하고, 지난 10월 15일 국제신문 소강당에서 열린 선거를 통해 신임 종무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동안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이하 태고종부산교구)은 부산교구종무원과 서부교구종무원으로 나눠져 운영됐다. 자관 스님이 무엇보다 '화합'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줘 의미가 깊습니다. 부산 태고종 종도 90% 이상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2개로 나눠 운영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 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며 종도들의 뜻을 모두 수렴하기 위해 종무원장 후보로 함께 나온 마나 스님을 행정 부원장으로, 지광 스님을 재정 부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그러면서 "화합은 태고종의 원동력이 되고 불도 부산의 또 다른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종무원장 자관 스님은 풀어나갈 선결과제로 종무원사 건립을 꼽았다. 지금 현재 인원을 수용하기도 벅찬 30평대 종무원사 공간이 부산 남산동에 위치한다.

"종무원사 건립은 무엇보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종도 교육을 위해서 현재 100평 이상의 공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수행 그리고 포교방향을 함께 의논하는 중요 거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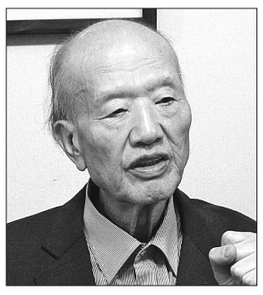
자관 스님은 이외의 실천과제로 △종도복지제도 확립 △수행풍토 조성 △자비실천 △불교중흥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스님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무원 혁신위를 구성하고 부산종무원 신도회를 창립해 재가자와 함께 성장 운영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역할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비구니회 창립을 도와 더 많은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관 스님은 마산 월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동래경찰서 경승,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상과 조계종포교원장상을 수상해 포교 활동을 인정받았으며, 지역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상을 3회 수상한 바 있다.

"자주 역사 관점서 불교 조명"

〈고주몽성제에서…〉 펴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불교 전래는 1세기 가야 초전
멕시코 시원, 고주몽 父가 이뤄
"자주사학 알리는 데 노력할 것"

"이제는 마지막 연구서라고 생각하고 집필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주 역사와 바른 불교사를 세우기 위해 책을 만들었죠."

최근 〈고주몽성제에서 광개토대제까지-대제국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왜 5국 역사기행〉을 펴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사진〉는 책을 집필한 계기를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고준환 교수의 〈고주몽성제에서…〉는 기존 삼국이 아닌 5국(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왜)을 한국 고대사 범주로 놓고 그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준환 교수는 우리 민족의 국제적 요소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김수로왕과 허황옥을 비롯해 인도 촐라왕국 석탈해왕과 남해왕 아효공주, 진 혜제와 백제 원희 등 5건의 국제결혼이 이뤄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민족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고주몽의 부친 고모수왕(북부여왕 또는 구려국왕)이 멕시코(맥이고)를 건국한 것을 처음 밝혔습니다. 고주몽의 서방진출도 조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민족이 고대부터 세계사회를 향한 국제적 요소와 기마민족 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방증입니다."

한반도 불교 전래에 대해서도 기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 아닌 더 이른 시기 해상을 통해 전해졌다고 봤다.

"불교가 실제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1세기 가야초전으로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 왕후와 그 오빠 장유화상(허보옥 선사)이 가져온 파사석탑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국의 불교 전래도 6세기 중반 백제 노리사치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수로왕의 딸 묘견공주와 7왕자가 도왜하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고준환 교수는 앞으로도 자주 사학을 통해 우리 민족 역사와 불교사를 바로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부터 여러 연구 저서를 통해 한국사를 바로 알리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대식민사관 등으로 한국 고대사는 바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인 고대사 가운데 고대 5국 역사를 자주적으로 밝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10.27법난, 공정한 평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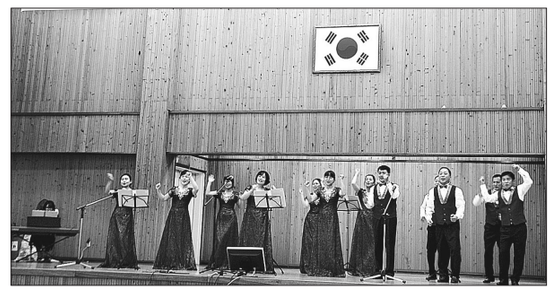
10.27법난 제38주년 기념법회 열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10.27법난 제3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결정을 내렸고, 5.18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0.27법난의 진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공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청소년가장에 희망 전해요"

원효종, 행복나눔 아름다운 동행 개최



원효종 울산 덕성사(주지 운오)는 10월 21일 '행복나눔 아름다운 동행' 12번째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 찻집을 시내 농소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원효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석불 스님, 진주 보현사사 보현 스님, 울산불교연합회, 덕성사 신도회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륜사 등 '모범 녹색사찰' 수상

불교환경연대, 10월 24일 협력사찰 시상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0월 24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서 '1회용품 안 쓰는 녹색사찰 시상식'을 열고, 협약사찰들의 친환경 활동을 치하했다. 이날 고양 금륜사와 울산 백련사는 각각 문수상과 보현상을, 서울 열린선원과 봉은사는 감사장을 받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에 불참한 서울 조계사에도 감사장이 전해질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27년 만에 『붓다의 철학』으로 새롭게 개정증보 발간!

서양철학 그 이상의 붓다 철학을 논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 이중표 교수의 역작!

"혹자는 불교가 어떻게 철학의 제(諸)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해소할 것이다."
_저자의 말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개정증보판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지음 | 464쪽 | 2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영문판 출간에 이어 한국어 개정판 출간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우 레와따, 크리스토퍼 거머 추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_우 레와따 스님(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교 경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_크리스토퍼 거머(마음챙김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현수 지음 | 우 레와따 감수 | 320쪽 | 17,000원